

기업가정신역량기반 창업교육과 지원성과간 관계 연구

변지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창업전담교수

국문 요약

4차산업 이래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경기악화로 인해 청년실업률이 지속적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변화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진로역량에 영향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일자리창출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대학 창업교육은 양적 성장세를 이어 왔고, 더불어 주요 창업지원성과라 볼 수 있는 창업자수·고용인원수·매출액 성과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학 창업교육이 어떠한 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창업교육은 주로 국내 교육 및 해외교육 현황이나 일부 역량관점으로 대학 창업교육을 다루는 선행연구가 있으나 아직 역량관점에서의 창업교육에 대한 연구는 도입단계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 대학에서는 실질적인 창업지원 성과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창업교육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또한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한다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따라 창업교육의 양적성장에는 이은 질적 고도화를 위한 다각적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창업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유럽에서는 수년간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기업가정신역량을 국민의 평생역량으로 인식하고 평생교육에 적용해 오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대학 별로 3~5단계 내외의 교육체계를 세우고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씽킹이나 캡스톤디자인식 등의 창업교과목과 같은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도 다소 증가하고는 있으나 주로 창업스킬 중심의 교육으로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학은 창업교육을 통해 사업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가를 육성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므로 대학별 특성에 따른 교육체계의 다양성에 더하여 이제는 국내 대학 창업교육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 또한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량관점으로 창업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창업지원성과 간 관계를 밝혀 창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가정신역량(Entrepreneurship Competence) 개념을 기반으로 4년제 창업선도대학의 역량별 창업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대학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여 기업가정신역량기반 창업교육과 지원성과 간 연관성을 밝혀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창업교육 지원체계를 고도화 함에 더하여 대학에서의 기업가정신역량기반 창업교육을 통하여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역량을 제고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창업지원성과를 높이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사명감을 가지는 바람직한 기업가를 발굴하고 육성에 있어 좀 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기업가정신역량, 기업가정신역량기반 창업교육, 창업지원성과

1.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최근 14%에 육박하는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경제적·구조적 요인으로 청년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성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질이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의 변화로 인한 진로미스매칭 현상도 심각하다. 취업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떠오르는 창업 관점에서든 긍정적인 상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

황이다. OECD국가 중 한국의 청년 기업가정신이나 창업교육 지원현황은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로 맥킨지(Mckinsey)는, 기존의 5% 미만 직업만이 현재의 기술을 활용한 전체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더 빠른 속도로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일자리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환경의 다변화로 개인의 선천적 기업가적 특질 보다는 후천적인 기업가정신 발현을 통해 누구나 기업가(entrepreneur)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김

선우 외, 2017). Drucker 또한 이제는 기업가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보았다.

산업혁명과 일자리 구조 변화와 같은 사회문제가 출현함에 따라 청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이 그 어느때 보다 사명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기업가정신을 고양시켜 기술기반 창업 관점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육성시켜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기업가정신 및 창업생태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글로벌기업가정신 트렌드리포트에 의하면 미국, 이스라엘,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하는 20개국 중 한국의 대학 내 기업가정신 교육경험 및 '평생교육 수준 기업가정신 교육경험'은 중하위권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학 창업교육의 양적 성장에 이은 질적 성장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계의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II. 연구 배경

2.1. 기업가정신역량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창출을 추구하는 사고나 행동방식을 특징 짓는 포괄적인 용어로 위험감수, 혁신, 기회의 포착과 활용에 대한 정의가 포함된다(한국기업가정신재단, 2017). 역량(capability)은 본래 직업 교육이나 훈련 분야, 혹은 성인교육 분야에서 숙달하고자 하는 직무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는 것과 관련된 개념으로, 핵심기술, 핵심역량, 일반기술, 핵심자질 등의 다양한 용어는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소경희, 2007). 기업가 역량이란 개인이 기업인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곽동산·정철호, 2017). Boyatzie(1982)는 McClelland의 역량연구를 관리자 역량으로 확장하여 역량을 성공적인 직무수행서 요구되는 동기, 기술, 자아상, 사회적 역할의 한 부분 또는 지식체계로 직무수행과 관련된 능력으로 보았다. 국내에서 창업지원사업을 가장 활발히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관인 창업진흥원의 k-startup 사이트에서는 창업역량을 창업자역량, 시장기회, 아이템 분석, 비즈니스모델, 전략 트랙으로 구분하였다.

Lackeus(2014)는 기업가정신역량을 구성하는 역량으로 지식(Knowledge), 기술(Skills), 태도(passion)를 제안하였고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도 이러한 접근법을 기업가정신 연구에 접목시키고 있다. EU(2016)는 기업가정신역량(Entrepreneurship Competence)을 국민이 갖추어야 할 평생에 역량으로 인식하고 평생교육에 반영하고 있다. 기업가

정신역량은 크게 아이디어와 기회(Ideas & opportunities), 자원(Resources), 행동(Into action)인 3개의 역량군으로 나누어 하위 15개의 역량으로 분류하였다.

<표 1> EU의 기업가정신 역량

역량군	기업가정신역량
Ideas & Opportunities	spotting opportunities
	creativity
	vision
	Valuing Ideas
	ethical & sustainable thinking
Resources	self-awareness & self-efficacy
	motivation & perseverances
	Mobilising Resources
	financial & economic literacy
	mobilising others
Into Action	taking the initiative
	planning & management
	coping with ambiguity, uncertainty & risk
	working with others
	Learning through Experience

실행요인을 포함하는 EU의 기업가정신역량은 기업가정신의 개념과 더욱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창업교육

Kourilsky(1995)는 창업교육을 기회를 인식하고 자원을 배분하여 모험적 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 정의하였고, 곽동신 외(2016)는 창업교육 또는 기업가정신 교육(Entrepreneurship Education)은 21세기형 새로운 직업교육 문화를 만들어 내는 길 중의 하나로 인식하였는데, 창업을 직업선택의 대안(Hills, 1988)이라 보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한국의 경우 '대학 내 기업가정신 교육 및 경험' 과 '평생교육수준 기업가정신 교육 경험'은 국제적으로 중위권이고 기업가정신 생태계지수는 조사된 20개국 중 16위에 그치고 있다(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17).

국내 창업교육의 정량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 발표된 대학정보공시를 기준으로 국내 4년제 203개 대학의 창업강좌수는 5,808개(평균 28.61개), 창업강좌 이수자수는 230,189명(평균 1,133.94명), 2019년도 발표자료에 의하면 205개 대학의 창업강좌수는 7,577개(평균 36.96개), 이수자수는 272,132명(평균 1,327.47명)으로 전년대비 각 129.19%와 117.07%의 비율로 증가세를 보인다. 이와 같이 국내 대학 창업교육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는 큰 이견이 없으나 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명확한 근거를 찾기 모호한 상황이다.

2.3. 창업지원성과

대학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성과간 연관성을 찾는 연구는 주로 자기효능감이나 창업의도 등으로 제한적인 상황이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 창업지원성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히 연구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 실질적인 창업지원성과 간 관계를 밝혀 보고자 대학정보공시에서의 창업자수, 고용인원수, 매출액 수치를 활용하기로 한다. 2019년도 정보공시 자료에 의하면 4년제 175개 대학의 창업자수는 1,466명(평균 8.38명), 고용인원수 539명(평균 3.08명), 매출액은 11,268,820,664원(평균 64,393,261원)이고, 창업자수 1,466명을 기준으로 창업자 1인당 0.37명을 고용하였고 매출은 7,686,781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대학알리미).

지금까지 창업교육의 양적성장을 넘어 교육과 지원성과 간 관계를 밝혀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질적성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할 시점이라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은 사회 구성원으로써 요구되는 기업가정신역량을 함양시킬 뿐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창업지원성과의 경우에도 무조건적 성과수치를 높여 나가기 보다 실제 창업한 학생들이 제대로 창업활동을 경험하고 지속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겠는데 기술창업분야의 특성을 적절히 고려하더라도 대학 뿐 아니라 창업학생 관점에서 지원성과 항목 간 적절한 비율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개선점들 또한 교육체계 및 더 나아가 평가체계 개선시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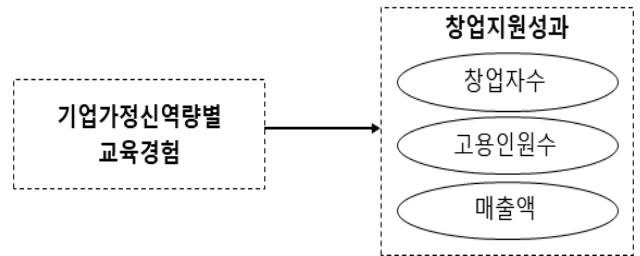
3.1. 연구모형 및 가설

선행연구와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통해 창업교육은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으며 교육의 양적확산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환경의 변화로 요구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이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주체가 창업지원 성과와는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기업가정신역량 관점에서 국내 대학의 창업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역량별 교육경험이 창업지원성과와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밝혀 보고자 한다.

따라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기업가정신역량별 교

육경험, 그리고 창업지원성과인 창업자수, 고용인원수, 매출액 변수로 구성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1: 기업가정신역량별 교육경험은 창업자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 기업가정신역량별 교육경험은 고용인원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 기업가정신역량별 교육경험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연구대상 및 분석방법

2018년도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된 4년제 대학의 학부 대상 창업교과목과 2019년도 대학정보공시(2018년도분)의 창업지원성과 수치를 연구 데이터로 활용하였다. 기업가정신역량은 국내외 선행연구 25개를 기반으로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업가정신역량을 도출하였다. 창업교과목을 기업가정신역량별로 구분하였고 정보공시의 대학별 창업지원성과를 활용하여 교육과 성과 간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대학생에게 적절한 기업가정신역량을 도출하고, 창업교과목을 기업가정신역량과 매칭하는 절차는 창업학을 전공하고 창업교육 및 창업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2차 검증과정을 거쳤다.

기업가정신역량별 내용포함 여부에 따른 집단으로 구분하고 역량별 창업지원성과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기로 한다.

IV. 연구결과

4.1. 기업가정신역량기반 교육현황

본 연구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기업가정신역량은 대학생에게 요구되는 미래역량을 포함하는 기업가정신역량이다. 대학생에게 적절한 기업가정신역량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그 중 다년간 폭넓은 연구를 통해 정제된 기업가정신역량(Entrepreneurship Competence) 연구를 기준으로 선행연구를 비교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기업가정신역량은 체계적이기는 하나 역량별 실행단계가 세분화 되어 있고 전 생애 역량에 맞추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가정신역량을 구성하는 것으로 모든 역량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생들이 앞으로 갖추어 나가야 할 기업가정신역량을 도출하고자 하며 역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행연구를 통하여 각 연구에서 제시되는 역량을 정리하였으며 기업가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개념을 포함하는 역량과 대학생이 자신의 내적·외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창업 또는 취업 등 다양한 진로준비상황에서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써 바람직한 기업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연구빈도와 대학 교육관점에서의 중요도, 창업시 중요도 반영, 유사하거나 동일 의미로 분류되는 경우 동일 역량화 하는 등 항목축소 과정을 거쳐 국내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업가정신역량을 1단계로 도출한다. 2단계로는 창업학을 전공하고 창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나 및 실제 사업화 중인 창업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분류체계를 검증받아 대학생이 갖추어 나가야 하는 기업가정신역량을 확정하였다. 3단계로 도출된 역량별 창업교과목과의 매칭 및 확인절차에 대하여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다.

기존 창업교과목을 기업가정신역량별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역량별 교육분포 간 편중이 심하여 개선 필요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창업교육과 지원성과 간 관계

2019년도 대학정보공시 자료에 의하면 교양 및 전공 창업교과목 강좌수 합과 이수자수 합, 창업지원성과인 창업자수, 고용인원수, 매출액 간 다중회귀분석 결과 이수자수

합만이 창업자수와 매출액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업가정신역량별 교육과 창업지원성과 간 관계는 2018년 4년제 창업선도대학의 학부대상 창업교과목과 2019년도에 공시된(2018년도분)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활용하여 역량별 교육내용 포함여부에 따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역량내용을 포함하는 교육이 다수 진행되고 있음에도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반면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량분야 교육은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원성과 중에서도 창업자수 대비 비교적 성과가 취약한 고용 및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량분야 교육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제언 하고자 한다.

그 외에도 향후 사회가 요구하고 대학생들이 만족하는 진로역량을 함양시키면서 창업지원 성과를 제고시켜 나갈 수 있는 조절변수나 또는 STEAM 관점에서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또한 국내 대학의 창업교육 고도화를 실현해 감에 있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치가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곽동신·정화영·김명숙(2016). 대학의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이 교육만족과 창업역량,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4), 37-48.
- 곽동신·정철호(2017). 대학생 창업자의 역량 정도가 창업교육 만족도와 창업의지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10), 383-390.
- 김선우·김영환·이정우·손하늬(201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Insight*,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정신의 의의와 방향, 218(2017.09.11.).
- 소경희(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1-21.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2017). *2016 글로벌 기업가정신 트렌드 리포트(요약)*, 1-71.
- Boyatzis, R, E.(1982). *The Competent Manager: A Model for Effective Performance*. New York: John Wiley.
- EU.(2016). *EntreComp: The Entrepreneurship Competence Framework*.
- Freeman, I.(2004). *The Development of Social Network Analysis: A Study in the Sociology of Science*, Empirical Press, Vancouver.
- Hills, G. E.(1988). Variations in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 Empirical Study of an Evolving Field.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3(2), 109-122.

- Kourilsky, M.(1995). Entrepreneur Education: Opportunity in Search of Curriculum. *Business Education Forum*, 1-18.
- Lackeus, M.(2014). An Emotion Based Approach to Assessing Entrepreneurial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12(3), 374-396.
- K-스타트업 <https://www.k-startup.go.kr>
대학알리미 www.academyinfo.go.kr 현